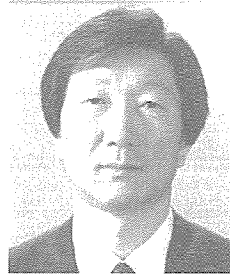


창립 15돌... 회원 젊고 외국인 많아 왕성한 학술활동

한국조류(藻類) 학회

조류학이라 하면 동물학에서는 새(鳥類)에 관한 학문을 말하지만, 식물학에서는 물 속의 하등 식물인 조류(藻類)에 관한 연구 분야로 우리 학회가 여기에 속한다. 식물계 전체에서 藻類는 유관속(vascular system)이 없는 식물로서 물 속에 살고 엽록소를 갖고 광합성을 하며, 생식기관은 그 구성세포 모두가 생식성을 가지며 생식성없는 체세포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식물을 말한다. 조류는 식물체 구성세포의 수에 따라 대형의 다세포 조류와 현미경적 크기에 불과한 단세포 조류가 있고, 습성에 따라 부착성과 부유성이 있으며, 서식지에 따라 해산과 담수산으로 구분된다. 조류는 형태, 식물체제, 크기 및 생물학적 특성으로 보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여러 분야의 생물학적 연구에 많이 쓰인다.

흔히 알려진 남조, 녹조, 갈조, 홍조, 규조, 유글레나, 윤조 외에도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원녹조, 황갈조, 후각편모조, 황녹조, 진안점조, 외편모조, 침편모조, 은편모조, 담녹조가 있는데, 실제로 담수에서 볼 수 있는 해감, 유글레나, 식물플랑크톤이나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파래, 김, 미역, 툇, 다시마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담수 면적도 많지만 삼면이 바다여서 자원의 관리와 이용이라는 점에서 조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류는 미래의 자원이며 21세기의 우주과학과 환경과학의 대상으로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李海福

〈한국조류학회 회장/청주대 생물학과 교수〉

외국인 회원 30% 차지

조류학은 조류에 대한 생물학을 지칭하는데 분야에 따라 분류학, 생리학, 생태학, 유전학, 양식학, 세포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류학회는 이같은 조류를 대상으로 또는 재료로 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조류학회가 창립되던 조류학자들은 식물학회, 수산학회, 양식학회, 해양학회, 육수학회 등의 학회를 통하여 학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학회가 창립된 이후에는 조류학회를 통하여 활발히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조류학회는 1986년 8월 19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설립되어 금년에 15주년을 맞이하였다. 조류학회는 최초 부산수산대학교 강제원교수의 회갑을 맞아 경북대학교 정준교수와 서울대학교의 이인규교수가 주도하여 서울대학교 원로 정영호교수의 자문을 받아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회원수는 국내 80명, 외국인 회원 13명이었으나 그 이후 매년 신입회원이 증가하여 현재 국내 회원은 정회원 2백79명, 도서관 회원 19명, 기관회원 11명으로 총 3백9명이며, 외국인 회원은 정회원 1백21명, 도서관회원 6명으로 총 1백27명이어서 국내의 회원 총수는 4백36명이다. 회원수로 볼 때 외국인 회원의 비율이 30%에 이르는 점과 자라나는 젊은 학자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조류학회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는 점과 다른

조류학(藻類學)은 담수에서 볼 수 있는 해감, 유글레나, 식물플랑크톤 그리고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파래, 김, 툇, 다시마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국조류학회는 86년 8월 창립되어 올해 15돌을 맞았다.

현재 회원은 4백36명으로 매년 5월 정기총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86년에 창간된 학회지 「藻類學會誌」는 10주년이 되는 96년부터

제호를 「ALGAE」로 바꿔 매년 4회씩 발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차세대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는 최초 1987년 4월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열린 이래 장소를 바꾸어가며 열렸고, 역대 회장으로는 부산수산대학교의 강제원, 경북대학교의 정준, 여수대학교의 고남표, 군산대학교의 김중래, 서울대학교의 이인규, 부경대학교의 손철현교수에 이어 현재는 필자가 맡고 있다.

초대 회장에 강제원교수

조류학은 연구범위가 넓으므로 조류학회의 회원들 역시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각 대학교, 연구소, 수산진흥원, 환경연구소, 해조산업체, 양식산업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식품회사, 사료생산회사 등이며 그 전공분야도 다양하다.

학회지는 「藻類學會誌」라는 제호로 1986년에 창간되어 연 2회씩 발간하였다. 10주년 되는 1996년부터는 학회지의 제호를 「ALGAE」로 바꾸고 책의 크기도 사륙배판에서 국배판으로 확대하여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학회 규모나 회원 수에 비하여 외국인 학자들의 구독이 상당히 많으며 조류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국외에서도 점점 더 빈번히 인용되고 있어 우리 회원들의 학문적 역량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회의 학술활동으로 매년 5월 정기총회를 겸하여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학술대회는 전국의 각 대학에 근무하는 회원이 유치하여 개최하므로 매년 장소가 바뀌어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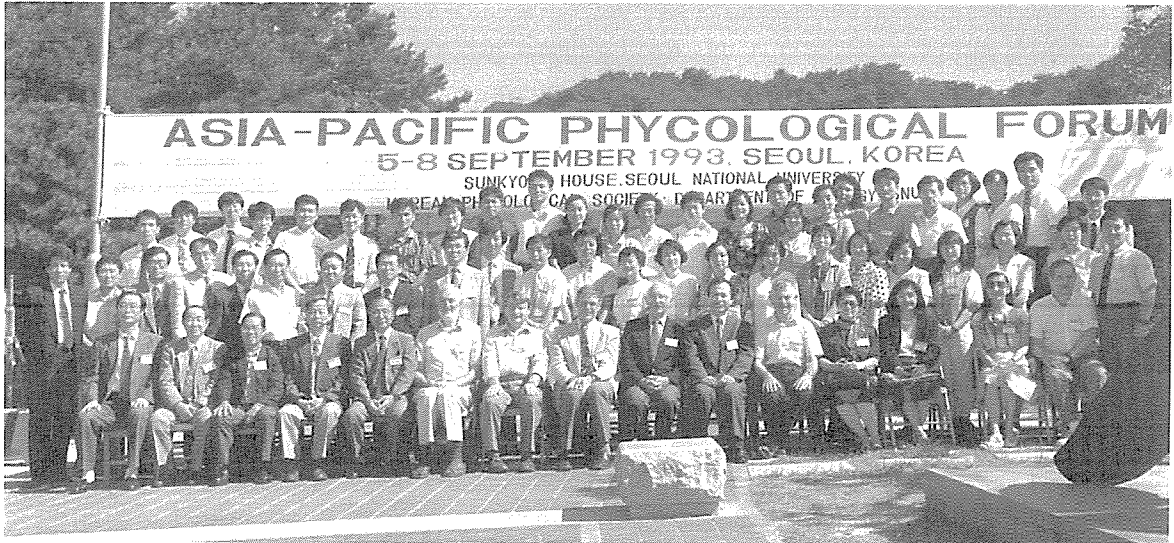
진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으며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병행하고 있다.

조류학회는 비정기적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왔는데 거의 매년 1회 내지 3회 개최하여 왔다. 심포지엄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회에서는 젊은 조류학자들의 학문적 성장을 위하여 1993년부터 매년 다른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워크숍을 열어 왔는데 이 기간 동안은 젊은 학자들 사이에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며 서로 교제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최초 워크숍은 1993년 1월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 공동연구소에서 '야외채집·무균배양 및 PCR 응용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열었으며, 금년 2000년에는 충남대학교에서 'DNA 서열분석과 조류의 분자계통'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외국 학자들을 초빙하여 미니심포지엄을 결들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DNA 염기서열 분석을 실습할 수 있도록 조직한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藻類學會報」 11권째 발간

1988년부터는 회원간 학술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藻類學會報」를 창간, 금년으로 제 11권의 학회보를 발간하게 된다. 학회보에는 회원들이 알아야 할만한 정보, 소식, 행사의 기록, 연구 보조자료, 방법론, 지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

조류학회는 자체의 수상제도로 춘해조류학상(春海藻類學賞)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이 포상제



제3차 '한·일조류학심포지엄'에서 '아시아·태평양조류학회'를 결성하면서(1993년 9월)

도는 초대 회장 강재원교수가 설립하였는데 그는 조류학과 조류학도를 각별히 사랑한 우리나라 조류학의 개척자로서 1986년 고혈압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1993년 소천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다. 춘해조류학상은 고 강재원교수의 유언에 따라 일천만원의 기금을 출연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매년 조류학회의 학술잡지인 「ALGAE」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상하는 제도로써 금년 들어 여섯번째의 상이 수여되어 조류학회 회원들의 학문적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조류학회에서는 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1989년부터 일본조류학회와 공동으로 한·일조류학심포지엄을 열어 왔는데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1991년 9월 일본 츠크바대학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1993년 9월 한·일조류학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양국 조류학자들은 양국 조류학심포지엄을 아시아·태평양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호주와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 조류학자들을 초청하여 아시아·태평양조류학회(Asia-Pacific Phycological Forum)를 결성하였다(사진).

우리 학회의 이러한 국제적 활동은 아시아 각국

의 조류학회 중에서도 특히 한국조류학회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이룬 성과이며 특히 한국조류학회 창립을 위해 산파역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이인규교수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이인규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조류학회의 제2대 회장으로 피선되어 활동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조류학회는 그 후 1996년 호주 시드니에서, 1999년에는 홍콩에서 각각 열리어 그 때마다 우리 학회의 젊은 회원이 전체 참석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수십명씩 대거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학문과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차기 회의는 2002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류학회의 회원들 중에는 국제적 활동을 하는 우수한 학자들이 많고 국제적 학회의 이사 및 편집 위원들이 다수 있다. 또한 회원들은 저명한 국제조류학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들 잡지들은 국제조류학회지인 「Phycologia」, 미국조류학회지 「Journal of Phycology」, 유럽조류학회지 「European Journal of Phycology」 외에도 「Botanica Marina」, 「Phycolog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hycology」, 「Nova Hedwigia」 등이다. ㉟